#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사피엔스

| | | | |
|---|---|---|---|
| 1주차 | 일시 | 3월 25일 15 : 00 상상파크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김예나(2313016) | O |
| | | 남기원(2191163) | O |
| | | 신종우(2671196) | O |
| | | 전혜원(2351049) | O |
| | | | |
| | 진도 | 도서명: 사피엔스 | 진도페이지: p.29 ~ p.114 |
| | 토론 내용 | <br>[좌측부터 김예나, 전혜원, 남기원, 신종우]<br>1부 <인지혁명><br><br>(예나)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허구)을 믿는 능력 덕분에 거대 집단을 형성했다고 말하지만 그 언어의 구체적인 구조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언어의 구체적인 구조는 무엇일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관련해서 백상현 교수님의 인지혁명의 본질 강의를 보았는데 테레스 디컨이 인간의 언어가 단순한 신호(도상/지표)를 넘어선 상징적 언어 체계임을 강조했다. (도상=아이콘, 지표=인덱스). 인간은 기호와 기호가 서로 비교되며 의미를 만드는 추상적 시스템인 상징적 언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상징적 문화를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자 추상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발달한 개체들이 선택됨. 즉, 문화가 생물학적 진화를 이끄는 문화 선택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왜 상징 언어를 쓰게 되었나? 프로이트가 말한 근친상간의 욕구가 금지되면서 욕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인지혁명은 단순히 지능 발달이 아니라 상징계(현실)라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br><br>(기원) 사피엔스에서 언급한 뒷담화 이론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과연 뒷담화로 인한 혁명이 가능할까?이는 마녀사냥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과연 문제점이 없었을지 궁금하다.<br><br>_(예나) 뒷담화의 혁명에 관한 예시가 무엇이 있었을까? SNS, 정치, 팬덤과 같은 가쉽? 신화, 종교, 국가, 돈의 탄생이라는 공통 믿음의 혁명?<br><br>_(종우) 대부분이 뒷담화를 하고, 우리도 모르게 뒷담화를 한다. 인간의 혀 구조 때문에 더 많이, 더 다양하게.<br><br>_(혜원) 현대 사회에선 뒷담화가 많이 변질된 형태로 작용하며, 과거엔 혁명이 |

| | | |
|---|---|---|
| 1주차 | 토론 내용 | 맞았겠지만 현재는 아니다.<br><br>(종우) 비트코인과 같은 현실의 화폐 단위를 믿음으로 인해 상용하는데 만약 그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허구를 믿는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br><br>_(종우) 초기화 된 다음에 원상 복구 될 것 같다.<br><br>_(기원) 상향표준화 될 것 같다.<br><br>(혜원)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사회 규칙들(법, 국가, 신, 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믿지 않고 법을 어기고 신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일까? 반대로 종교의 경우 대단히 열성적이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러는 것인가?<br><br>_(혜원) 종교의 경우 변질되어서 돈이나 권력을 위해 종교를 창시하고 믿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의 경우 어떠한 한 사람이 자신이 이 사회에 속해있지 않고 사회가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한다.<br><br>_(종우) 신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br><br>_(기원) 사회 공동체의 일원은 종교나 법을 믿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br><br>(종우) 책에서 관용은 사피엔스 특징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피엔스들을 왜 관용을 허용하지 않았을까?<br><br>_(혜원) 인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br><br>_(예나) 유전자의 이기심 때문에, 또는 책에서 나온 것과 같이 사피엔스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 체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br><br>_(종우) 우리 종만 강하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br><br>(예나) 사피엔스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br><br>_(기원) 책에서 사피엔스를 연쇄살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 깊었다.<br><br>_(종우) 사피엔스가 유일하게 인지라는 능력 때문에 세계를 장악하였고 그 부분에서 뇌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허구를 믿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br><br>_(혜원) 공통된 믿음을 통해 유지되는 사피엔스 체계가 인상깊었다. |

<table>
<tr><td rowspan="8">2주차</td><td>일시</td><td colspan="2">4월 1일 15 : 00 상상파크</td></tr>
<tr><td rowspan="6">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김예나(2313016)</td><td>O</td></tr>
<tr><td>남기원(2191163)</td><td>O</td></tr>
<tr><td>신종우(2671196)</td><td>O</td></tr>
<tr><td>전혜원(2351049)</td><td>O</td></tr>
<tr><td></td><td></td></tr>
<tr><td>진도</td><td>도서명: 사피엔스</td><td>진도페이지: p.29 ~ p.114</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김예나, 전혜원, 남기원, 신종우]<br>
2부 <농업혁명><br><br>
(예나) 수렵채집인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경계를 허무는 노마드인데, 반면 농업은 땅에 선을 긋고 울타리를 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현대판 노마드와 농업혁명은 무엇이 있을까?<br><br>
_(예나) 농업혁명: 배달 앱이나 구독 경제 시스템은 현대인을 특정 시스템에 정속시킨다. 과거의 농부가 밀을 위해 허리를 굽혔다면, 현대인은 플랫폼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바친다. 노마드: 특정 국가, 특정 사무실이라는 영토에 귀속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하며 일하는 이들은 현대판 유목민. 그리고 예술과 철학을 하는 사람들. 고정된 전공, 고정된 정체성에 머물지 않는 이들.<br><br>
_(종우) 노마드: 20대, 한 곳에 정착되지 않고 기회가 생기면 자주 이동하기 때문. 농업혁명: 공장, 비닐하우스, 인공적인 혁명<br><br>
_(기원)노마드: 청년, 현대인들이 노마드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함. 농업혁명: Ai, 사피엔스 삶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침<br><br>
_(혜원)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작업을 함. 농업혁명: 디지털 혁명</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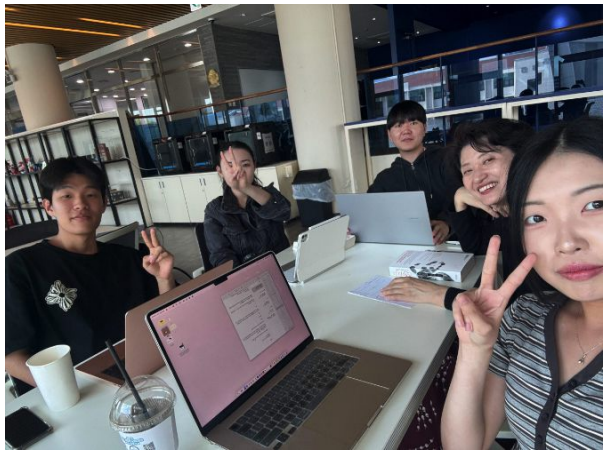
| | | |
|---|---|---|
| 2주차 | 토론 내용 | (종우) 사회적 규범, 즉 '상상 속 질서'의 시초가 궁금하다.<br><br>_(종우) 상상 속 질서는 공동체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권력욕이 더해지며 시작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능력을 인정받던 이들이 대중의 불안을 파고들어 자신을 초자연적 존재나 신과 연결하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이후 이들은 개인의 권위를 신화나 종교라는 거대한 이야기로 확장하여 퍼뜨린다. 이 가공의 서사가 공동체의 믿음으로 자리 잡는 순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대중을 하나로 묶고 통제하는 강력한 상상 속 질서가 탄생한다. 결국 한 명의 인지도가 만인을 다스리는 사회적 규범으로 격상되는 것이다.<br><br>_(혜원) 처음 시작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 머리 있고 똑똑한 사람이 진행했을 것 같다.<br><br>_(기원) 농업혁명에서 발생한 잉여 식량들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 시초일 것 같다.<br><br>(기원) 농업혁명이 인류 전체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개개인의 삶에서 질을 하락시켰다고 본다. 현대사회에 Ai 혁명같이 우리삶의 편리함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Ai 알고리즘에 갇혀 사는게 우리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br><br>_(종우) 사회적 틀에 갇혀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이 많아질거다. 본인이 나아가는 방향이 본인 스스로에게 맞는 건지 모르고 살지 않을까?<br><br>_(예나) 과연 알고리즘에 갇혀 사는 것이 자유로울까? 시리얼 코너에서 원하는 시리얼을 선택했을 때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br><br>_(기원) Ai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의 격차가 생길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br><br>_(혜원) 활용할거면 활용하되 매몰되지 말자는 주의이다.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도움을 얻는 면도 있지만 예시로 SNS 알고리즘(버터떡, 두쫀쿠 유행)에 매몰되면 본질을 잃게 되는 것 같다.<br><br>(혜원) 인간이 농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농업에게 지배당했다고 책에서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br><br>(예나)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스스로 삶을 선택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모방한다고 생각한다.<br><br>(기원) 남들을 따라가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 삶을 살아가다보면 남들 선택에 휘둘릴 때도 있고 따라가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 |

| | | |
|---|---|---|
| 2주차 | 토론 내용 | _(종우)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선택되는 것 같다. 인간은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br><br>(예나) 그렇다면 시스템에 따르는 것은 자유로울까?<br><br>_(종우) 시스템에 따르지 않으면 배척당한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 것 같다.<br><br>_(혜원) 말로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 사회가 그런 경향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의 개성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br><br>_(기원)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따라가게 되겠지만, 사회의 큰 공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

<table>
<tr><td rowspan="8">3주차</td><td>일시</td><td colspan="2">5월 6일 15 : 00 상상관 2층</td></tr>
<tr><td rowspan="6">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김예나(2313016)</td><td>O</td></tr>
<tr><td>남기원(2191163)</td><td>O</td></tr>
<tr><td>신종우(2671196)</td><td>O</td></tr>
<tr><td>전혜원(2351049)</td><td>O</td></tr>
<tr><td></td><td></td></tr>
<tr><td>진도</td><td>도서명: 사피엔스</td><td>진도페이지: p.247 ~ p.368</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br>[좌측부터 혜원, 종우, 교수님, 기원, 예나 ]<br>3부 <인류의 통합><br>요약: 역사를 멀리서 바라보면, 인류 문화는 파편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통합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수천 개의 독립된 문명으로 시작했던 지구는 시간이 흐르며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였고, 오늘날 우리는 사실상 하나의 지구촌(글로벌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통합?: 돈, 제국, 종교<br><br>(예나) 본문 근거: "보통 기독교인은 일신론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이신론적 악마, 다신론적 성자, 애니미즘적 유령을 모두 믿는다."<br>질문: 하라리는 순수한 형태의 일신교는 드물며, 대부분의 종교가 역사적 필요에 따라 여러 종교적 요소들을 혼합해 왔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나 불교를 믿으면서 동시에 사주, 타로, MBTI에 몰입하거나 제사 문화(유교적 전통)를 유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하나의 완벽한 교리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믿음의 요소를 '혼합'하여 소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br><br>_(기원) 사주나 타로같은 경우, 정말 100% 사실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표현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br>_(종우) 다양한 믿음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하나의 믿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 다른 믿음들을 통해 완벽한 상태로 가고자 한다.</td></tr>
</table>

| | | |
|---|---|---|
| 1주차 | 토론 내용 | _(혜원) 문화적 요소와도 관련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와 유럽에서 넘어온 기독교를 문화 등등 결국 다양하게 흘러온 현상을 선택해서 믿는다.<br><br>_(백혜정 교수님) 사실 되게 기독교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하다. 기독교 문화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대치된다. 종교와 삶이 겹치는 부분이 적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을 때 많은 것을 한국화를 한다. 예를 들어,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기도 한다.<br><br>(종우) 제국 부분 읽으면서 유대인이 떠올랐고 유대인은 로마제국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흩어지고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유대인이 자기 나라를 잃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서 살아가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 정신적 결합 = 종교의 힘이 되는가? 무신론자가 많은데 유대인을 보면 종교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결속 시킨다. 그렇다면 현재 종교를 믿는것이 인간의 효율성을 따지면 +인지 -인지 궁금하다. 내 생각은 종교를 믿는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게 도움된다.<br><br>_(기원) 종교를 믿는다면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치유의 과정을 갖기에 좋다.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하는것보다 더 낫다.<br><br>_(혜원) 효율적이다. 삶의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마이너스가 될 때는 내 믿음만 있는 경우다. 내 믿음을 너무 강요는 하면 안 된다.<br><br>_(백혜정 교수님) 종교는 오랜 시간 동안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끈끈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무교'를 선언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등 전통적인 종교 집단 내부에서도 자녀 세대의 신앙 전수가 끊겨 '종교는 존재하지만 진정한 신자는 사라지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현대 보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종교적 교리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현대 교육은 개인의 평등과 다양성, 상호 존중을 가르치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 등 많은 종교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타 종교나 문화를 배척하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사회적 시민으로서의 나와 특정 종교인으로서의 나 사이에서 극심한 정체성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종교는 신자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심과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지만, 현대의 개인들은 자신의 사적인 욕구와 자아실현을 포기하면서까지 집단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 결과적으로 종교가 제시하는 배타성과 강요된 충성심은 현대인들에게 삶의 해답을 주기보다 오히려 가치관의 혼란과 편협함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세대가 종교를 외면하고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br><br>(혜원) 지금 현재에는 인류가 돈, 제국, 종교를 통해서 통합이 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것을 대체할 무언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Ai로 대체된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언어를 가진 ai가 있고, 가상화폐 또한 그러하다. |

| | | |
|---|---|---|
| 3주차 | 토론 내용 | _(예나) 나도 ai라고 생각한다. 이 질문을 듣고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바벨탑이 떠올랐다.<br><br>_(기원) 나는 약간 굳이 꼽자면 ai이긴 한데 돈, 제국, 종교를 벗어나지 않을듯 싶다.<br><br>_(종우) 지구가 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br><br>_(백혜정 교수님)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ai로 대체되는 미래가 낙원인가 지옥인가 생각하게 되고 sf를 보게 되면 영화소재로 많이 나오게 되고 불안하면서도 궁금하면서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의 상상력이 에이아이 나오기 전부터 에이아이의 출현을 예측하게 되는. 어쨌든 인간적인것을 놓치면 안된다. 딱 그 과도기에 걸린 사람으로서 에이아이가 없는 세상을 상상을 못 하는 것처럼 그것에 노예가 되거나 완전히 지배되어가지고 세상 멸망이 온다는 그런것도 있었는데 사피엔스처럼 살아남을 수 있나. 누구도 답을 정확하게 못 내리는 상황. 에이아이 종교가 나올 수 있다. 일부나 전부를 대체가능하다<br><br>_(종우) 인간이 대체되엉도 제한을 할 것 같다. 감정이 마이너스가 있어야 플러스가 되듯이 나중에 다 대체가 되어도 일부러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부 힘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복잡해진다.<br><br>_(교수님) 써로우게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헬멧같은거 쓰고 집에 있고 나를 대신한 무언가가 돌아다니는, 대신하는게 과연 도움되는가?<br><br>(기원) 사람에 대한 정의나 평화가 아닌 돈, 제국, 종교라는 실용적인 가치로 인류가 묶여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선택하고 믿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결국 국가, 종교, 돈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AI는 실체가 없는 존재일 뿐이지만, 사람은 국가·종교·돈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AI는 인생에 필요한 도구이자 수단으로만 쓰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주변을 보면 AI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br>_(예나) 인간과 AI의 유대감 및 감정 형성 문제를 다룬 영화 <her>이 생각났다.<br><br>_(백혜정 교수님) 유대감 및 감정 형성이라는 의제와 관련하여, 영화 <A.I.> 등 유사한 주제를 다룬 영화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br><br>_(종우) AI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 노예라는 것인지,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 미래 세대는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을 더 많이 받을 것이므로, 결국 AI와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br><br>_(혜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주도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패션 전공자로서 광고나 패션쇼가 AI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을 컨펌하는 주체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

| | | | |
|---|---|---|---|
| 3주차 | 일시 | 5월 13일 15 : 00 상상파크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김예나(2313016) | O |
| | | 남기원(2191163) | O |
| | | 신종우(2671196) | O |
| | | 전혜원(2351049) | O |
| | | | |
| | 진도 | 도서명: 사피엔스 | 진도페이지: p.369 ~ p.584 |
| | 토론 내용 |  <br>[좌측부터 종우, 혜원, 기원, 교수님, 예나]<br>4부 <과학혁명><br><br>(예나) 4부 마지막에서 저자는 우리가 스스로를 설계하는 '신'이 되려 한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 영생하거나 지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그것을 과연 '사피엔스의 진화'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사피엔스의 멸종'이라고 불러야 할까? 내 생각에는 인간의 정체성은 유기적 독립성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AI를 '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두는 상태야말로, 사피엔스가 수만 년간 지켜온 '도구를 사용하는 영장류'라는 본질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극대화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화이다.<br><br>_(기원) 《사피엔스》 를 기반으로 보면, 이 과정은 인류가 진화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br>_(종우) 진화라기보다 '멸종'에 가깝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류가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AI는 비록 우리가 만들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면 결국 인간과는 다른 종족이 될 것이다.<br>_(혜원)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술 발전 역시 인간이 이루어낸 결과물이자 능력을 강화시킨 과정이므로 '진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육체는 남아있더라도 인간성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멸종'이다.<br>_(백혜정 교수님) 진화와 멸종이라는 흥미로운 논의가 나왔는데, 결국 사피엔스의 본질이자 기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즉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보면 감정조차 과학적 화학작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그렇기에 인간만이 가진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

| | | |
|---|---|---|
| 1주차 | 토론 내용 | (기원) 《사피엔스》 과학혁명 파트에서 유발 하라리가 질병, 인간의 행복,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다룬 부분이 인상 깊었다. 책에 나오는 길가메시 프로젝트처럼, 인간이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본인을 위한 올바른 행동이 맞을까?<br><br>_(종우)영생은 좋지 않다고 본다. 삶은 정해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br>_(혜원)대체로 영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어차피 그런 영생 기술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권력자나 자산가들이 많을 것이다.<br>_(백혜정 교수님)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한 백만장자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는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수 특권층의 영생과 젊음을 위해 소외된 인구가 희생당하는 구조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문학 작품 등에서 경고해 온 인간의 오랜 욕망이다. 젊을 때는 죽음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영생 갈망은 계속될 것이다.<br>종우과학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문과(인문학)다"라는 말이 있다. 과학 기술에만 너무 집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과연 인문학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br>(참고: 공학을 전공했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시야가 넓어 더 빨리 성과를 내고 승진한다는 이야기가 있듯, 인문학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br>_(기원) 지난 학기에 <인문학으로 바라본 과학 생활>이라는 교양 수업을 들었다. 문과 출신이라 과학 교양을 들어도 될지 고민했었는데, 다양한 영화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인문학과 과학은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 공생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느꼈다.<br>_(혜원)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고 예술을 금지하는 사회를 다룬 영화 <이퀄리브리엄>이 떠오른다. 영화 속 사람들은 감정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몰래 예술을 향유한다. 이처럼 금지해도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인문학 자체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자 본성이 아닐까 싶다.<br>_(예나)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연상된다.<br>_(백혜정 교수님) 인문학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사유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지금 과학 기술의 발전을 두고 진화인지 멸종인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문학적 사고이다. 과학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고도의 결단 역시 인문학과 밀접하다.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중심을 잡아줄 때 과학의 키(방향성)도 올바르게 잡힌다. 최근 의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인문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도 과학에만 매몰되어 길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결국 기술의 종착지에는 인문학적 결단이 필요하다. |

| | | |
|---|---|---|
| 1주차 | 토론 내용 | (혜원) 《사피엔스》 의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인상 깊게 보았다. 그렇다면 인류의 죽음은 정말로 과학 기술을 통해 극복 가능한 영역일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아예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br><br>_(기원) 다소 어설픈 추측일 수 있지만 결국 기술적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설령 가능해지더라도 그것은 오직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허락될 특권일 것이기에, 차라리 죽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br>_(종우)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해 영생을 누리는 영화 <매트릭스>의 세계관이 연상된다.<br>_(백혜정 교수님) 만약 인간의 본질을 '신체'가 아닌 '의식과 정신'이라고 정의한다면 논의는 달라진다.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죽음의 극복 가능 여부를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미래에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의 의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 설령 그런 기술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삶을 택하고 싶지 않다. 사실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적으로는 극복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종교'를 통해 정신적으로 극복해 왔다. 영생의 가능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결국 죽음이라는 정해진 끝을 마주하기 전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어떻게 행복하게 채워나갈 것인가가 본질적인 과제다. |

| | No. | 클럽원 정보 | 후기 내용 |
|---|---|---|---|
| 활동 후기 | 1 | 김예나 (2313016) | <사피엔스>라는 방대한 텍스트를 통해 인류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현재를 다각도로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발제문을 고심하고 토론을 이끄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다채로운 시각을 접하며 사유의 지평을 한층 넓힐 수 있었다. 어려운 개념 속에서도 매주 열정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준 팀원들 덕분에 깊이 있는 소통의 가치를 깨달았다. |
| | 2 | 남기원 (2191163) | 평소에는 책을 자주 읽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에 가까워졌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 자주 독서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br>특히 혼자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조원들과 교수님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 같은 책을 읽고도 개인의 감상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덕분에 다양한 시각으로 책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
| | 3 | 신종우 (2671196) |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만나서 내용에 깊이가 없을 줄 알았지만 의견이 활발하게 나와서 순조롭게 활동했습니다. 평소에 책을 읽으며 드는 생각을 다양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서로의 생각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 4 | 전혜원 (2351049) | 처음엔 단순히 인류의 발전과정에 대한 책이라 생각했지만 읽을수록 인간이 만든 사회, 돈, 국가, 종교 같은 것들이 공동의 믿음에서 유지된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현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사회에 관해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트랙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다양한 관점을 나누며 생각이 더욱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챗지피티나 인공지능이 발달함과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든 거 같았는데 이러한 점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독서토론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
| | 5 | 성명 (학번) | |